

고문자 '卵'을 통해서 본 고대 '卵生'의 의미 考察

박성우 · 문치웅

中國文化研究 第48輯(別刷本)

2020. 5.

고문자 '卵'을 통해서 본 고대 '卵生'의 의미 考察

박성우* · 문치웅**

〈目 次〉

1. 들어가며
2. 전래문헌에 나타나는 '卵'의 의미 검토
 - 1) 한국 전래문헌의 '卵'
 - 2) 중국 전래문헌의 '卵'
3. 고문자 '卵' 풀이를 통한 '卵生' 재해석
4. 나오며

1. 들어가며

현재 史料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고대시기 건국이나 주요 인물 탄생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부분 신화로 인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三國遺事』의 단군왕검 관련 기록에서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 기도를 하고, 마늘과 쑥을 먹은 후 삼칠일 후에 곰이 여자가 되었다는 說과 동 史料 및 『三國史記』의 국가 형성기 기록에 출현하는 고주몽, 박혁거세, 석탈해, 김수로 등의 알에서 태어났다는 說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¹⁾ 또한 지리적으로 매우 근접하고 예부터 문화적으로 유사한 중국 고대 史料에서 역시 이와 유사한 여러 신화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다. 간략히 언급해보면 현재는 산실되어 일부만 확인할 수 있는 『三

* 주저자: 명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객원교수

** 교신저자: 흥익재단 연구원장

1) 李東歆校勘, 『校勘三國遺事』, 서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2년. 박성봉, 고경식, 『譯解三國遺事』, 서울: 서문문화사, 1985년. 李民樹, 『三國遺事』, 首爾: 乙酉文化社, 1990년. 洪起薰發行, 『(原本)三國史記·三國遺事』, 首爾: 大提閣, 1987년.

『五曆紀』의 천지 창조 盤古의 說이나 『楚辭』, 『太平御覽』에 기록된 인류 창조 女媧의 說을 확인할 수 있고, 앞서 언급한 알에서 태어났다는 동일한 說 또한 확인할 수 있다.²⁾

‘신화’를 간략하게 정의하면 상상이나 신비스러운 이야기로, 현재 문헌 풀이 바탕으로 전술한 내용을 살펴본다면 실제로 발생한 어떠한 역사 사건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본고에서는 위 몇 가지 설화 중 한·중 사료에서 모두 나타나는 卵生과 관련된 說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詩經·商頌·玄鳥』를 살펴보면 ‘天이 玄鳥에게 명하여 내려가 商을 만들게 하였다(天命玄鳥, 降而生商).’라 하였고, 『史記·殷本紀』에서는 보다 상세하게 ‘殷나라 契의 모친은 簡狄이라 하는데, 유음씨의 딸로 帝嚳의 차비가 되었다. 세 사람이 목욕을 하다가 玄鳥가 그 알을 떨어트린 것을 보았고, 簡狄이 받아 삼켜 임신하여 契를 낳았다(殷契, 母曰簡狄, 有娥氏之女, 爲帝嚳次妃, 三人行浴, 見玄鳥墮其卵, 簡狄取吞之, 因孕生契).’라 하였다.

이 같은 내용은 현재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난생을 고대시기 영웅이나 건국시조의 탄생과 결부하여 신비화하고 권위를 부여하였다고 여긴다. 그렇다면 어떠한 연유로 난생을 이용하였나? 이 근원적인 의문이 본 논문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즉, 인물들의 등장에서 난생으로 표현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이유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한·중 고대 사료에 기록된 여러 신화 중 난생신화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기초 작업으로 고대 사료에서 살펴볼 수 있는 ‘卵生’에 대한 의미를 用例를 제시하여 검토하고, 당시 의미 형성에 대한 배경과 확대된 의미 변천에 집중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고대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고문자 ‘卵’의 자형을 종합 분석하여 최초 ‘卵生’ 기록의 근본 발생 원인과 전반적인 인식을

2) 현재 후대에 작성된 『太平御覽』, 『藝文類聚』 등의 사료에서 일부 단락만 확인할 수 있다. <https://baike.baidu.com/item/%E4%B8%89%E4%BA%94%E5%8E%86%E7%BA%AA/6406333?fr=aladdin>. 李昉編纂; 夏劍欽校點, 『太平御覽·第一卷』,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4년, 1쪽. [唐]歐陽詢撰, 『藝文類聚』,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년, 2쪽. 劉向編纂, 『楚辭』, 北京: 商務印書館, 1939년, 44-45쪽. 李昉編纂; 夏劍欽校點, 『太平御覽·第一卷』,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4년, 672쪽.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2. 전래문헌에 나타나는 '卵'의 의미 검토

본고에서는 王國維가 제창한 二重證據法을 이용하고자 한다. 二重證據法은 王國維가 中華民國時期 清華學校 國學研究院에서 『古史新證』을 강의하면서 시작한 연구방법으로 紙上의 사료와 地下의 자료를 서로 대조하여 증명하는 것이다.³⁾ 즉, 출토자료와 전래문헌을 상호 비교하여 보다 과학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먼저 본 장에서는 '卵'과 관련된 현재 살펴볼 수 있는 한중 전래문헌의 文例를 수집하고 의미에 따라 분류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한국 전래문헌의 '卵'

한국 문헌에 나타나는 '卵'과 관련된 기록의 대부분은 위인의 탄생과 결부하였고, 『三國史記』, 『三國遺事』 등의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박혁거세, 석탈해, 김수로, 주몽 등 위인의 탄생 또는 등장과 연관되었다. 먼저, '卵'이 사용된 문헌의 기록을 분류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한다.⁴⁾

(1) 백마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절하는 형상으로 있었다. 거기를 살펴보니 보랏빛 알 한 개(푸른 빛 큰 알이라고도 한다)가 있고, 말은 사람을 보자 길게 울며 하늘로 올라갔다. 그 알을 가르니 형상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사내아이가 나와 얻게 되었다. …… 이름을 혁거세왕이라고 하고 …… 왕위의 칭호는 거슬한(居瑟郞)이라 하니 …… (有一白馬跪拜之狀. 尋檢之有一紫卵(一云青大卵). 馬見人長嘶上天. 剖其卵得童男形儀端美. …… 因名赫居世王. …… 位號曰居瑟郞. ……)

『三國遺事卷第一·新羅始祖 赫居世王』⁵⁾

3) 王國維, 『古史新證』,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1994년, 2-4쪽.

4) 사료의 번역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였다.

<http://db.history.go.kr/>